

# 파트너즈 vs 그린라인, 파죽지세 vs 센프렌즈 결승 격돌

<광일리그>

<무등리그>

##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

### 27일 합평야구장서 결승전

#### 10시 광일리그·13시 무등리그

파트너즈, 그린라인, 에어패스파죽지세, 버서커 센프렌즈가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결승행을 확정지었다.

광주일보와 전남문화가 주최하는 '제14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준결승전이 20일 합평야구장에서 펼쳐졌다.

이날 경기에는 지난 12·13일 치러진 8강전에서 진출한 광일리그의 파트너즈-킹가이즈-그린라인-무안어니언스와 무등리그의 합평드래곤즈-파죽지세-센프렌즈-상무스타치과가 출전해 승부를 벌였다.

광일리그 4강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무등리그 경기는 오후 1시부터 치러졌다.

파트너즈는 선발 김강민의 활약으로 킹가이즈를 15-3, 4회 콜드승으로 제압했다.

승리투수가 된 김강민은 타석에서도 2안타로 3득점에 성공했고, 3번 이영준이 3안타 2득점, 7번 이현이 2안타 2득점 1도루를 기록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탤다. 1-0으로 맞선 3회 파트너즈가 대거 14점을 수확하며 승기를 가져왔다. 그린라인은 무안어니언스에 8-5, 5회 시간제한

### #무등기 준결승 전적

- ◇광일리그
  - ◆1경기 <4회 콜드승> 킹가이즈 0 0 2 1 - 3 파트너즈 1 0 1 4 - 15
  - ▲승리투수 : 김강민
  - ◆2경기 <5회 시간 제한승> 무안어니언스 0 1 3 1 0 - 5 그린라인 4 1 2 0 1 - 8
  - ▲승리투수 : 조진훈
- ◇무등리그
  - ◆1경기 <4회 콜드승> 합평드래곤즈 0 0 0 0 - 0 에어패스파죽지세 12 2 0 -
  - ▲승리투수 : 최영현
  - ◆2경기 <5회 콜드승> 상무스타치과 0 0 0 1 0 - 1 센프렌즈 2 0 2 0 5 - 9
  - ▲승리투수 : 양하성



무안 어니언스는 2번 타자 임명규가 3타수 3안타 1타점 2득점 2도루를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전세를 뒤집는 데는 실패했다.

1회부터 12점을 올린 파죽지세는 합평드래곤즈를 상대로 14-0 완승을 거뒀다.

선발 최영현이 3이닝 동안 탈삼진 4개를 뽑아내는 등 실점없이 상대를 막으면서 승리투수가 됐고, 마운드를 물려받은 류호현이 1이닝 2탈삼진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합평드래곤즈는 최영현의 호투에 막혀 2안타를 기록하는 데 그쳤고 6개의 삼진을 당하면서 4회 콜드패로 고개를 숙였다.

이날 결승행 마지막 티켓은 센프렌즈가 따냈다.

센프렌즈는 상무스타치과와의 준결승전에서 5이닝을 1실점으로 막은 선발 양하성의 활약 속에 9-1, 5회 콜드승을 장식했다. 7번 타자 이현은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2타점 1득점에 성공했다.

상무스타치과는 엄기선이 유일하게 홈에 들어오면서, 5회 5점을 뽑아낸 센프렌즈에게 결승행 티켓을 넘겼다.

한편 14번째 무등기 챔피언이 결정되는 대망의 결승전은 오는 27일 합평야구장에서 펼쳐진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파트너즈와 그린라인의 광일리그 결승전이 치러지며, 오후 1시 파죽지세와 센프렌즈의 무등리그 결승전이 마련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캡틴' 손흥민, 부상 복귀전서 시즌 3호 골 폭발

### 토트넘, 웨스트햄에 3-1 승

### PSG 이강인, 2경기 연속골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의 '캡틴' 손흥민(사진)이 4경기 만의 부상 복귀전에서 시즌 3호 골을 폭발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10월 A매치 2연전을 마치고 소속팀에 복귀한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 이강인은 2경기 연속골로 리그 4호골을 장식했다.

손흥민은 19일 열린 웨스트햄과의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EPL) 8라운드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팀이 3-1로 앞서던 후반 15분 득점을 올렸다.

역습 상황에서 파페 사르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수비수 한 명을 앞에 두고 골지역 왼쪽에서 왼발 슈팅을 날려 골망을 흔들었다.

이로써 손흥민은 시즌 득점을 3골로 늘렸다. 도움은 2개를 기록 중이다.

손흥민은 지난달 27일 가라바흐(아제르바이잔)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경기에서 험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부상을 당했고, 이후 공식전 3경기에서 결장했다.

손흥민은 후반 16분에도 득점 기회를 맞이했으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다.

손흥민은 앞서 후반 10분에는 토트넘이 3-1로 앞서나가게 하는 웨스트햄 장클레르 토디보의 자

책골을 유도해내는 등 맹활약하며 4-1 승리를 이끌었다.

이강인의 PSG는 20일 진행된 스트라스부르와의 2024-2025 프랑스 리그1 8라운드 홈 경기에서 4-2로 이겼다.

A매치 2연전을 모두 풀타임으로 소화한 이강인은 체력 안배 차원에서 벤치에서 출발했고, 후반 13분 마르코 아센시오 대신 그라운드에 투입돼 팀이 3-1로 앞서던 후반 45분 득점에 성공했다.

직전 6라운드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했던 이강인은 이번 시즌 자신의 두 번째 2경기 연속골을 앞세워 리그 4호 골의 기쁨을 맛봤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1, 2라운드에서 연속으로 골 맛을 봤고, 6, 8라운드에서도 연이어 득점했다.

더불어 지난 시즌 PSG 유니폼을 입고 정규리그에서 3골을 터트렸던 이강인은 일찌감치 자신의 리그 1호 골을 기록하며 기쁨을 나누었다.

한편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레디비시 페예노르트 로테르담에서 활약하는 축구 대표팀 미드필더 황인범은 정규리그 첫 도움으로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달성하며 팀의 대승에 힘을 보탤다.

페예노르트는 20일 열린 고 어헤드 이글스와의 2024-2025 에레디비시 9라운드 원정에서 5-1로 승리했다.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황인범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이 4-0으로 앞서던 후반 32분 홀리안 카란사의 득점을 돕는 활약을 펼쳤다. /연합뉴스

## '생존 싸움' 광주FC, 논두렁 그라운드에 실력 발휘 못해

### K리그1 34라운드 대구와 무승부

### 광주시체육회 그라운드 개선 약속

결과도 과정도 아쉬웠던 광주FC의 무승부였다.

7위에 자리하면서 '생존싸움'을 벌이게 된 광주FC는 지난 18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대구FC를 상대로 파이널라운드 첫경기이자 K리그1 2024 34라운드 홈경기를 치렀다.

이날 광주는 후반 32분 0-0의 균형을 깨는 골을 장식했다.

최경록이 왼쪽에서 올린 프리킥이 문전에 있던 번준수에게로 향했고, 시원한 헤더로 광주가 선제골을 장식했다. 하지만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다.

후반 39분 경계 대상이었던 세징야-에드가 콤비에 골대가 뚫렸다. 세징야가 코너킥 커서 나서 오른쪽에서 공을 올렸고, 높게 뛰어오른 에드가가 정확한 헤딩으로 광주 골망을 흔들었다.

막판 공세를 막지 못하면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던 광주에는 어쩔 수 없는 경기 과정도 아쉬웠다.

등심등심 흠박을 드러낸 그라운드는 울퉁불퉁한 논바닥이기도 했다. 정상적인 드리블이 불가능한 그라운드 탓에 양 팀 사령탑과 선수들은 "준비한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입을 모았다.

경기가 끝난 뒤 대구 박창현 감독은 "그라운드 컨디션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다. 상대도 같은 조건이지만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며 "세징야가 본인의 타이밍을 못 잡고 드리블을 해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많이 힘들어했다. 홈팀 광주에 죄송하지만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광주 이정호 감독도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다.

이정호 감독은 "홈 팬들에게 조금 더 좋은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 그라운드 사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서 선수들을 칭찬해 주고 싶다"며 "(경기장 상태에 따라) 플랜, 경기 스타일도 바뀐다. 그럼에도 선수들에게 준비한 대로 시도를 하



광주FC의 번준수가 지난 18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대구FC와의 K리그1 34라운드 경기에서 헤더를 시도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라고 한다. 그런 부분에서 더 칭찬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도움을 기록한 최경록도 "첫 번째 코너킥 때 잘 안 올라가서 프리킥 때는 자신 있게 차보자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찼다. 번준수가 헤딩을 잘한 덕분에 골이 들어갔다. 경기가 그렇게 (승리로) 끝나기를 바랐는데 아쉽다"며 무승부의 아쉬움을 토로한 뒤 "땀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부상자도 나오고 있어서 아쉽다. 준비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빌드업 축구인데 경기를 뛰면서도 홈이 맞는지, 다음 경기도 홈인데 원정을 가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광주는 22일 원정 같은 홈경기를 치러야 한다.

광주는 이날 오후 7시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조호르 다를 타킵(말레이시아)과 2024-2025 ACLE 리그 스테이지 3차전을 갖는다. 그라운드 사정으로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실사 점검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광주월드컵경기장이 아닌 용인으로 이동해 경기를 갖게 됐다.

한편 광주월드컵경기장 관리 책임 주체인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18일 (주)영진조경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잔디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시체육회는 "스포츠 잔디 납품 및 시공 전문업체로 축구장, 프로야구장 및 골프장 천연잔디 시공에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자체적인 잔디농장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보식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기술 정보가 공유되고, 잔디 품질 향상을 위한 자문도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광주는 11월 27일 상하이 원화(중국)와의 AFC 5차전 홈경기를 앞두고 있다. 11월 8일 예정된 AFC의 실사에 따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홈경기 여부가 결정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박보검, KLPGA 상상인·한경와우넷 우승

박보검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상상인-한경와우넷오픈(총상금 12억원) 정상에 올랐다.

박보검은 20일 경기도 이천 사우스프링스CC(파72-6천63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로 6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의 성적을 낸 박보검은 2위 김수지를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지난해 5월 교촌 레이디스오픈에서 정규 투어 첫 우승을 달성한 박보검은 1년 5개월 만에 2승째를 거뒀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2억1천600만원이다.

3라운드까지 선두에 4타 뒤진 공동 8위였던 박

보검은 이날 6~8번 홀과 10~12번 홀에서 두 번이나 3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선두로 치고 나갔다.

1타 차 선두였던 박보검은 15번 홀(파4)에서 5.5m 버디 퍼트를 넣고 2위 선수들에 2타 앞서며 승기를 잡았다.

박보검이 먼저 15언더파로 경기를 마친 가운데 김수지가 17번 홀(파3) 4m가 조금 넘는 버디 퍼트를 넣고 1타 차로 추격했다.

김수지는 선두와 1타 차에서 시작한 18번 홀(파4) 두 번째 샷이 그린 주위 벙커에 들어갔고, 벙커에서 친 세 번째 샷은 홀 왼쪽 약 50cm에 놓이면서 경기를 연장으로 넘기지 못했다.

마다숨이 13언더파 275타로 단독 3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 즐거움

# 문화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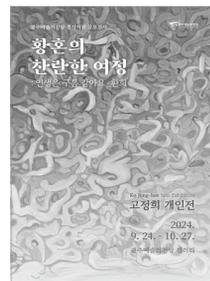


## 광주예술의전당

##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10월)**  
 일시 : 2024-10-05(토) ~ 2024-10-31(목)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0.31.(목) 오후 7시 기획공연  
 (강하달림 시물 Bluse)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고정희 개인전 : 황혼의 찬란한 여정**  
 일시 : 2024-09-24(화) ~ 2024-10-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